

불교와 미학

나한은 어떤 인물인가?

# 범부중생의 온갖 소원 다 듣는 眞人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 받은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절하옵 니다. (至心歸命禮 靈山當時 受佛付囑 十大弟子 十六聖 五百聖 獨修聖 乃至 千二百 諸大阿羅漢 無量慈 悲聖衆)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지만 아침저녁 삼보에 예경 을 할 때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범을 부촉받은 10대 제자, 십육 아라한, 오백 아라한, 그리고 천이백 아라 한에게도 빠짐없이 예경한다. 뿐만 아니라 나한을 위 한 전각도 존재한다.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라고 불리 는 이 전각에는 한분, 열여섯 분, 많게는 오백 분까지 아라한을 모신다. 열여섯 아라한의 대표로 빈두로존 자만 모신 전각을 독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산 신 및 칠성여래와 함께 삼성각에 모시기도 한다.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 Arhat)의 준말이 며 원래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 하나이다. 부처님 의 십대 명호 중 하나가 이다. 아라한이란 번뇌를 모 두 끊어서(살적, 殺賊) 진리에 계합하였으므로(응진, 應眞) 미망에서 벗어나(이악, 離惡) 다시 생사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며(불생, 不生) 수행을 완성하 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므로(무학, 無學) 사람과 하늘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성자(眞人)이며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춘(응공, 應供) 존재이다.

최초의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며, 그의 제자

**독성, 16, 500나한 예경  
예불 칠정례에도 포함돼  
중생들 염원 듣는 존재**

들도 네 가지 수행의 단계(四果)인 예류과(sota- apanna), 일래과(sakadagamin), 불환과(anagamin) 를 거쳐 마지막 아라한(arahat)을 성취한 성인들 이다.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에서는 석 가모니 부처님을 불보(佛寶)로서 최고의 예경 대상 으로 삼고 있으나 그 제자들은 비구 아라한, 다시 말 해 승보로서 간주된다.

나한은 단일한 신앙의 대상으로도 묘사되지만, 16 나한, 18나한, 500나한, 1200나한 등 집단적으로 신앙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500이나 1200이라는 숫자는 부처님 제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데, 제1차 결집 때 500명의 비구들이 모였다고 하여 '오백 나한' 이라고 부른다. 오백 나한의 경전적 근거는 <중일야합경>, <십송율>, <법화경>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십육나한 신앙의 소의경전은 스리랑카의 난제밀다라 존자에 의해 불멸 후 800년경 만들어져서 654년 당나라 현 장 스님에 의해 번역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 주기(大阿羅漢難題密多羅所說法住記)>이다. <법주 기>에 나오는 십육나한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빈두라바라타사존자
  2. 가라가발사존자
  3. 가 락가바라타사존자
  4. 소빈타존자
  5. 낙구라존자
  6. 발타라존자
  7. 가리가존자
  8. 발사라불다라존자
  9. 술박가존자
  10. 반탁가존자
  11. 라흐라존자
  12. 나가 세나존자
  13. 인갈타존자
  14. 벨라바사존자
  15. 아시 다존자
  16. 주다반탁가존자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6 나한과 500나한의 조상이 조성되었으며 전각의 이



은해사 거조암(사진 위)과 운문사 오백전(사진 아래)의 5백나한(사진 아래). 나한들의 모습에서는 개성과 다양성이 넘친다. 이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은 중생의 염원을 듣는 친숙한 존재 이기 때문이다.

름도 모시는 존상의 수효에 따라 독성각, 십육전, 오 백전이라고 부른다. 티베트에서는 재미있게도 십육 나한에 중국의 포대화상과 재가불자인 다르마칼라 가 더 해서 18나한이 신아는 속명통과 양의 대상 이 되었다.

그렇다면 초기불교의 이상인 아라한을 대승불교 에서 받아들여 예경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 까? 아라한은 수행을 통해 삼명(정, 의, 지)을 깨달았다는 비범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성취한 자들인데, 그 능력이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전생을 다 사람들이 지은 업에 따라 죽은 뒤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천안통,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을 얻는 누 진통,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몸을 바꾸고 장애 없이 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신족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인 천이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까지, 슈퍼맨도 모르는 능 력이다.

특히 첫 번째 나한인 빈두로파라타는 목련존자와 더불어 부처님 제자들 중 신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정하고 조신한 다른 제자들 과 달리 그는 약간의 껍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왕사성에 머물 때 목련존자와 함께 탁발하러 나갔다가 어느 부유한 상인이 긴 장대 끝에 나무 발 우를 걸어두고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가져간 다면 주겠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귀한 나무로 만든 그 발우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장대에 오르지 못해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자 빈두 로 존자가 목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을 사용 하여 가볍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한 손으로 발우를 들고 공중에서 왕사성을 세 번 돌면서 사람들의 환 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함 부로 신통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첨가하셨으 며 빈두로존자에게는 미래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반열반에 들지 말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부 처님을 대신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부탁한다.

빈두로 존자는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며 부 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 묵히 실천하였다. 그는 반열반에 들지 않고 여러 곳 을 여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남인도의 마리산에 머물면서 중생들 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말세의 공양

을 받아 대복전이 되었으므로 그를 '세상에 머무는 아라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 여섯명의 아라한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주어졌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무상법 으로 십육 대아라한과 권속들을 부촉하여 그것을 호 지하고 있어지지 않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몸이 시주자들에게 복전이 되어 큰 과보를 얻게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한다.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인 이 열여섯 명의 성인들은 신통력으로 스스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다음 부처님 이 오실 때까지 정법이 머무는 곳에 항상 따라가 호 지하고 시주하는 사람의 복전이 되고 있다. 그들은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을 제공하고 병들 거나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받을 때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보장해주었고 가뭄이나 외적의 침입 등 재난을 당했을 때 기꺼이 신통력을 사용하여 고난에 서 건져주었다.

이와 같은 신통력 때문에 아라한은 모든 불교권에 서 신앙되어 왔다. 초기불교 전통을 잇는 부파에서 는 빈두로파라타를 상좌로 모시는 풍습이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동진의 도안(道安) 스님이 처음으로 빈

두로존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당나라 때 나한 신앙이 성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 대에 크게 흥성하였다. 고려 때에는 강유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왕이 친히 나서서 나한재를 올렸 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국왕이 되기 전에 나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나한재는 주로 재앙, 천재지변, 외우내환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국왕의 무병장수 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나한은 용을 지물 로 지니고 있으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구병과 득 남의 복을 주거나 외적의 침입을 막는 등 영험어린 존재로 각인되어 왔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유송의 승려 범현과 범경이 처 음으로 그 존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존상을 '독성' 또는 '나한존자' 라고도 부른다. 나한 의 도상적 근거가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유왕경>에서 빈두로존자를 백발이 성성하고 얼 굴을 덮을 만큼 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것 이 전범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경전에서 규정하는 32상 80종호라는 도상 적 근거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그 외관도 석가모니 부 처님의 왕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 을 하는 것과 달리,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은 특별 한 도상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외모를 지닌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불보살상 도상 근거 있다면  
나한상은 해학적 모습 넘쳐  
부처님 "복전이 될 것" 술회**

자세도 열여섯 명, 때로는 오백 명이 각각 다르다. 염주, 죽비, 또는 금강저를 들고 있거나, 무릎 꿇고 과일을 공양하는 나한, 두건을 쓰고 선정에 든 나한 이 있는가 하면, 경을 읽거나 붓과 두루마리 책을 손 에 들고 있는 나한, 호랑이 등에 턱을 괴고 있는 나 한, 등을 굽거나 하품을 하고 있는 나한, 거울을 든 나한, 부채를 든 나한, 꽃을 든 나한 등 오백 명의 나 한이 제각각 다른 표정,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통력으로 불로장생하기 때문에 백발의 나한은 중국에 들어와서는 도교의 신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년의 나한은 두툼하고 짙은 눈썹과 풍부한 턱수염이나 콧수염을 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눈썹 은 가늘고 수염도 매우 간략하며 머리는 절제 채색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성과 다양성은 불상에서는 찾을 수 없던 것으로, 원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짐작된 다. 또한 실제 승려의 얼굴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커 서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오 대(五代)의 승려화기인 관후 (貫休)가 그린 16나한도 중 나고나존자(羅?羅尊者) 1폭 이 관후의 자화상이라는 이야 기가 명대 진계유(陳繼儒)가 지은 <이교록?古錄>에 수록 되어 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사리)

## 알기 쉬운

# 구단구궁법

## 서울, 경기, 전국 구단구궁법대학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수강생모집

- 초보자 환영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주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b>강 의 일정표</b>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li> <li>■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li> <li>■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li> <li>■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li> <li>■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li> </ul>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1호선 의정부역 1번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82501-01-278750 (예금주 대불사)